

2 종합

문정식 전 총학생회장 업무상 배임 미수 수사 ‘혐의없음’ 결론

최고훈 기자 cgh99915@khu.ac.kr

【국제】 ‘총학생회장 업무상 배임 미수’ 진정서에 따라 조사를 받던 문정식(중국어학 2018) 전 총학생회장에 경찰은 지난 18일 불송치(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로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기는 하나, 예산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지원센터를 경유해 집행되므로 단독으로 축제 대행업체를 선정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문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의 주요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 계좌 내역 상 특정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가로 “공개입찰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단독수익계약을 한 것은 경희대 국제캠퍼스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적시했다.

문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축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를 내정해 기존의 공개경쟁 입찰 과정을 활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익계약(임의로 상대를 선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우리학교 규정상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행사는 공개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뒤 진행해야 하는데 문 회장은 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수익계약을 진행하려던 업체가 전완주(일본어학 2015) 전임 총학생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업체였기에 논란이 가속화됐다.

이에 정황상 의혹을 품은 우리학교 재학생들은 수사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작년 5월 수원남부경찰서에 ‘경희대학교 준계 대동제 의혹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수사 기간동안 문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논리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 결과에 진정서를 낸 재학생 측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칙” 67조 5항에 따라, 본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해 제출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명시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축제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실제 이익이 실현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제기한 미수 혐의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개편 내용

	개편 이전	개편 이후(2025~)
학과(부) 명칭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가칭)
정원	55	88
전공	단일 전공	소재 · 발광소자학
		구동소자 · 시스템학

정보디스플레이, 첨단학과 선정 학부체제 · 2개 전공으로 개편

서나은 기자 merlo@khu.ac.kr

【서울】 이과대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첨단기술 분야 입학 정원 증원 정책’의 대상 학과로 선정됐다.

‘첨단기술 분야 정원 증원 정책’은 인재 양성이 시급한 첨단기술 학과가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물론 제도 시행 이전에도 대학은 첨단학과의 증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과 입학 총정원 조정은 까다로워 편입학 인원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리학교는 지난 2022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편입학 여석을 줄이는 조건으로 총 4개 학과(빅데이터응용학과, 인공지능학과, 스마트팜학과, 반도체공학과)의 증원을 승인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 정보디스플레이학과와 첨단학과 선정은 다른 정원의 감

소 없이, 최초로 순증 배정을 받아냈다는 데에서 기존과 차이가 있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지난해에도 입학 정원 증원을 신청했지만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김정호(나노광전자소자) 교수는 교육과정에서 첨단학과로서의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올해는 학부 체제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신청했다”며 “교육과정 개편과 더불어 학과 명칭도 기존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변경해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가칭)’라는 명칭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첨단학과 선정으로 2025학년도부터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로 개편된다. 학부 체제로 개편되며 입학 정원도 늘어난다.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는 2개의 세부 전공(소재·발광소자학, 구동소자·시스템학) 체제로 운영된다. 입학생은

2년간 공통 교과과정 이수 후 3학년년부터 세부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입학 정원은 기존 55명에서 33명 늘어난 88명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10일 간담회를 통해 학생에게 처음 공지됐다. 다만 간담회에서 학부 명칭으로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가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김 교수는 “재학생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학과 명칭을 결정한 이후 2026년 편제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부제 시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시행세칙 등은 올해 여름방학 중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과대학 박규창(정보디스플레이소자) 학장은 “개정 교육과정은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게 기본이지만 재학생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자 한다”며 “학생과 소통하며 세부 세칙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교 75주년 맞이 배너, “생기 있고 활기찬 분위기”

장해린 기자 sunblessyou@khu.ac.kr

개교 75주년을 맞아 서울캠을 비롯한 국제캠, 광릉캠 가로등 곳곳에 신규 제작한 배너가 걸렸다.

우리학교는 지난 2009년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캠퍼스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가로등 배너를 설치했던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캠퍼스 내 인원수가 줄며, 배너 설치가 일시 중지됐다.

가로등 배너 설치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올해 개교 75주년 기념 배너

가 새로 제작됐다.

이번 배너엔 경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휘장을 새겼고, 밝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교내 메인컬러인 주황색과 하늘색이 이용됐다.

또한 배너에는 ‘Toward Lux Mundi’와 ‘전환의 시대 경희의 도전’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Lux Mundi’는 라틴어로 ‘세계의 빛’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향한 책무 속에서 인간의 정신과 실천 세계의 조화를 추구해 온 경희의 설립 정신을 표방한다.

또한 전환의 시대, 문명사적 위기



올해 개교 75주년을 맞아 가로등 배너가 설치됐다.

(사진=김수현 기자)

를 넘어 세계를 다시 밝힐 새로운 빛의 창조를 향한 염원을 담고 있다. ‘Lux Mundi’는 국제캠 사색의 광장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문구이기도 하다.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배너는 경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과 밝은 분위기의 색상을 활용해 제작했다”며 “경희 이미지 각인과 구성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소영(미디어학 2022) 씨는 “배너 덕분에 학교가 더 생기 있고 활기찬 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